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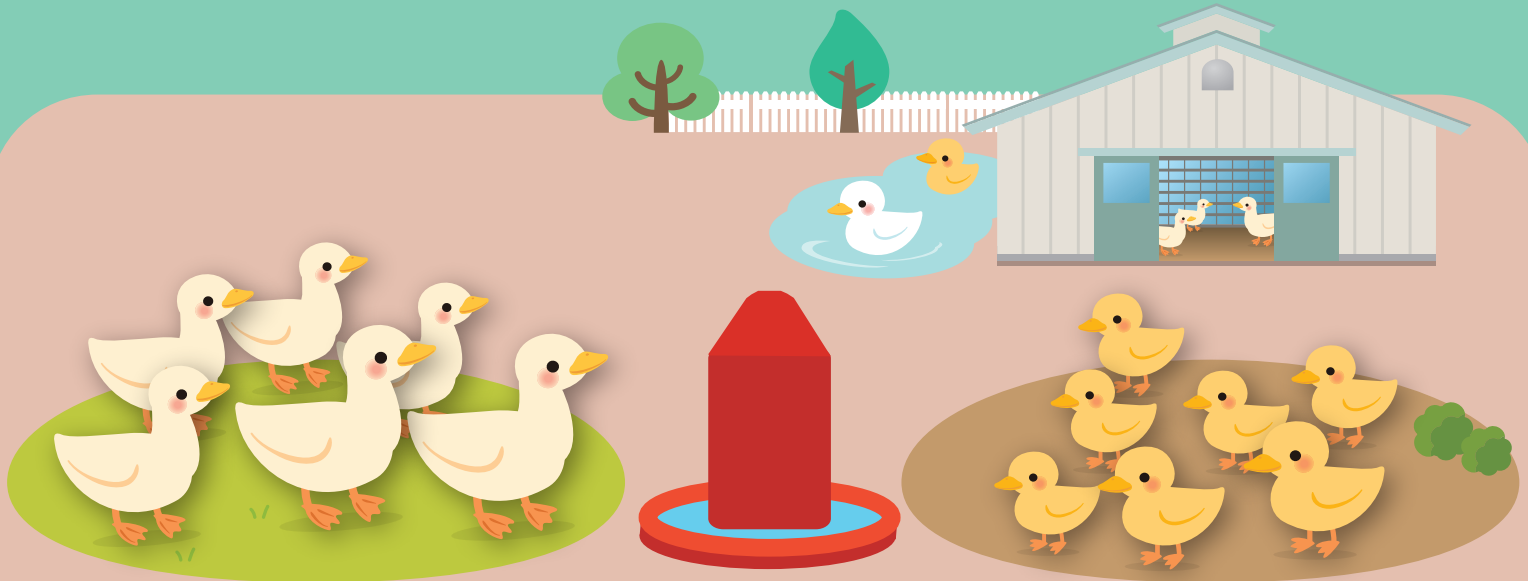


오리

농업관측센터 aglook.kre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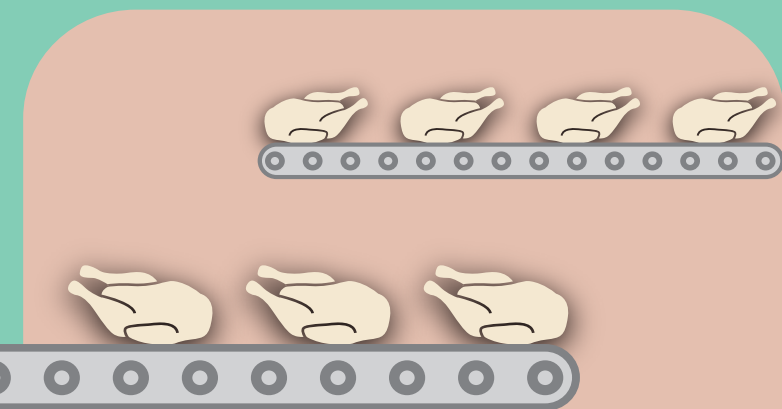
축산관측은 한육우, 젓소, 돼지, 산란계, 육계, 오리의 6개 축종에 대해 실시됩니다. 육계와 돼지 관측은 매월 25일에 발표되며, 그 외의 축종에 대한 관측은 매분기(2,5,8,11월) 25일에 발표됩니다.

9월 오리 생체가격 6,000~6,500원/3kg 전년수준 전망



종오리 사육수 증가 ↑

육용 병아리 사육 마릿수 증가 ↑



오리고기 공급량 증가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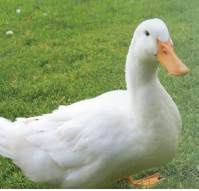


수요 증가 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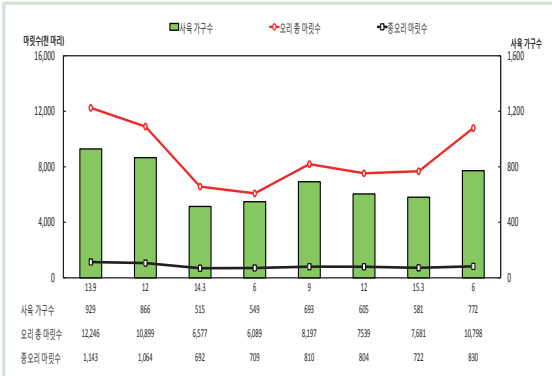
FI 종오리 입식 근절 및 SI 방역 철저

※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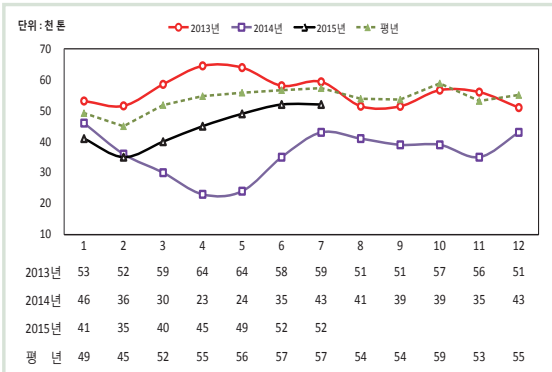
6월 오리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

오리 사육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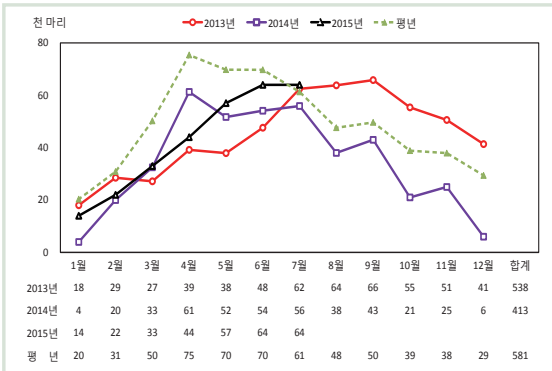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가축동향」

오리 배합사료 생산 동향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종오리 입식 동향



자료: 한국오리협회

오리 생산성 현황

구분	출하일령(일)	출하체중(kg)
'15년 8월	44.2	3.3
'14년 8월	44.8	3.2
증감	-0.6	0.1

자료: 농업관측센터 조사치(8월 3일~10일)

오리 사육 동향과 전망

6월 오리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

- 6월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(71만 마리)보다 17.1% 증가한 83만 마리,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(540만 마리)보다 85.3% 증가한 997만 마리였다.
-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(609만 마리)보다 77.3% 증가한 1,080만 마리로 '13. 12월 AI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.
- 오리 사육 농가는 772가구로 전년(549가구)보다 40.6% 증가하였다.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1만 4천 마리로 전년보다 26.1% 증가하였다.

7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

- 7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.8% 증가한 52,218톤이었다. 육용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.3% 증가한 49,050톤이었으며, 산란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.5% 증가한 3,168톤이었다.
- 육용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9~10월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2분기 종오리 입식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

- 2분기 종오리 입식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6만 5천 마리였으나, 7월은 6만 4천 마리로 전년 대비 14.8% 증가하였다.
- 9~11월 도압 마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'14. 1~12월 종오리 입식 마릿수는 동기간 대비 23.6% 감소하였다.
- 종오리 입식 마릿수는 감소하였으나, F1 종오리 입식으로 인한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로 9월 이후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(중앙자문회의 결과).

8월 육용오리 생산성 전년 수준 유지

- 표본농가 조사결과 출하체중과 출하일령은 각각 3.3kg, 44.2일로 조사되어 육용오리 생산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, 올해 폭염과 잦은 비로 일시적 생산성 저하를 겪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(중앙자문회의 결과).

9~11월 오리고기 공급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



오리고기 공급 및 전망

9~11월 도합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전망

- 9~11월 도합 마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8~10월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 동기 대비 7.8%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.
- 2분기 도합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5.3% 증가한 1,812만 마리로 크게 증가하였다.
- 9~11월 도합 마릿수는 F1 종오리 입식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5.1% 증가(평년 대비 14.6% 감소)할 것으로 전망된다.

9~11월 오리고기 공급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

- 도합 마릿수 증가로 9~11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.9% 증가한 27,106톤으로 추정된다. 국내 오리 고기 생산 증가로 수입량은 전년 수준인 742.9톤으로 전망된다.
- 7월(15일) 이후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, 육용오리 병아리 입식 증가로 하반기 오리고기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9~11월 오리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동기보다 27.1% 증가한 27,876톤으로 전망된다.

9~11월 가정 내 오리고기 수요 전년 대비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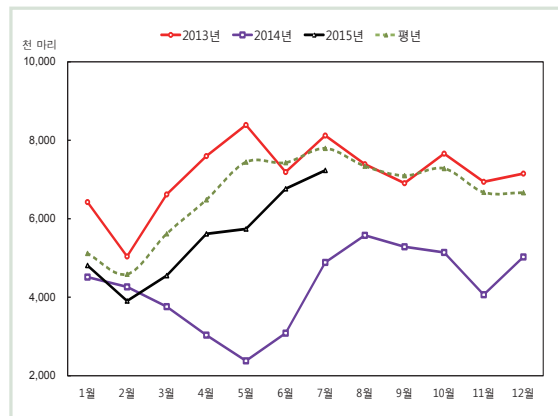
- HPAI 발생과 메르스의 여파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어 '15년 상반기 가정 내 오리고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대비 18.8% 감소한 1.06kg이었다. 오리 고기 월평균 구매액도 전년보다 17.2% 하락한 14,297원(kg)이었다.
- 9~11월은 계절적으로 오리고기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이나, 상반기 메르스 확산우려로 취소된 일부 행사들이 하반기 활성화됨에 따라 오리고기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(중앙자문회의 결과).

■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(2014년 8월=100)

구분	8월	9월	10월
2015년	97.6	106.3	111.2
2014년	100.0	92.4	100.1
증감률(%)	-2.4	15.0	11.1

자료: 농업관측센터 전망치

■ 도합 마릿수 동향



자료: 농림축산검역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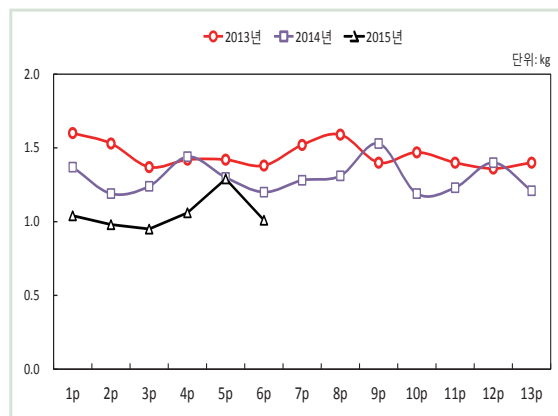
■ 오리고기 총 공급량 전망

구분	국내생산(톤)	수입(톤)	공급(톤)
'15. 9~11월	27,106	742.9	27,876
'14. 9~11월	21,187	740.4	21,927
증감률(%)	27.9%	0.3%	27.1%

주: 국내생산은 각 해당연도 도합 마릿수와 출하체중을 고려하여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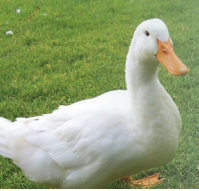
자료: 농업관측센터 추정치

■ 가정 내 오리고기 평균 구매량 추이



주: 1p는 4주를 의미함.

자료: Kantar Worldpanel Korea



9월 오리 생체가격 전년 수준인 6,000~6,500원/3kg 전망

오리 가격 동향 및 전망

8월 오리 생체가격 전년 대비 상승

- 8월(24일까지) 평균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2.6% 상승한 7,000원/3kg이었다.

9월 생체가격 6,000~6,500원/3kg 전망

- 오리고기 공급량이 증가하나 9~11월 생체가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9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수준인 6,000~6,500원(3kg)으로 전망된다.
- 10~11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.3% 하락한 6,000~7,000원(3kg)으로 전망되나, 오리 업계의 냉동재고 비축 여부에 따라 변할수 있다.
- 겨울철 AI 발생 시 오리고기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소비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.

오리 생체가격 동향 및 전망



자료: 한국오리협회(월 평균가격)

오리 산업의 안정적 발전 및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의무자조금 납부에 업계 및 농가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.

축산관측(오리) 다음호 예고 (예정일자: 2015. 11. 25)

- 축 중: 오리
 - 내 용: 사육 동향과 전망, 가격 동향과 전망, 배합사료 생산동향, 수출입동향
- 이 『축산관측보』는 농업관련기관·단체 홈페이지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『축산관측보』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【질의응답】을 선택한 후 【글쓰기】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연구원 홈페이지 【KREI 회원】에 가입하시면 축산관측보를 전자우편(e-mail)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홈페이지 ☞ <http://www.krei.re.kr> ☎ 042) 826-9803 FAX: 042) 826-9804
<http://www.mafra.go.kr> ☎ 044) 201-2217 FAX: 044) 868-3965

담당자: 우병준(축산관측실장), 이윤경(산란계, 오리), 이형우(한육우), 김형진(육계), 한봉희(돼지), 정세미(젓소), 황수진(문서교정)

이 「축산관측」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·분석한 후, 농업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